

기존 국부의치를 임시 총의치로 전환하는 법

임시 의치는 유치악 또는 부분적 무치악 상태에서 통상적인 총의치로 이행 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의치이다. 기존 국부의치가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우면 이를 이용하여 임시 총의치로 전환해 사용하면 복잡한 기공 과정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임상 및 기공술식

1. 기존 국부의치를 필요에 따라 구강내에서 조절한다.
2. 진단 모형에서 individual tray를 제작하여 치아있는 부분에 주연 인상(border molding)을 하고 구강내에 국부의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rubber base 인상을 채득한다(그림 1).
3. 인상체 내면의 자연치 부분과 의치상이 부착되지 않도록 wax를 경계부에 첨가한다(그림 2).
4. 인상체 내면의 자연치 음형에 자가 온성 레진(치아색)을 부어서 굳으면 index groove(작업 모

형상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를 형성한다(그림 3).

5. 통법에 의해 boxing하고 경석고틀 부어 굳으면 작업 모형에서 인상체를 분리한다(그림 4).
6. 작업 모형에서 국부의치를 제거한 후 undercut부분을 block-out하고 분리제를 바른다.
7. 새로 만들어진 인공치가 모형상의 제 위치에 있는지 index groove로 확인하고 자가 온성 레진으로(pink) 의치 주연을 형성한다. 의치 주연이 완성되면 인공치 설면에 유지구를 형성한 후 국부의치를 모형에 올려 놓는다(그림 5).
8. 국부의치와 인공치 및 의치 주연을 자가 온성 레진으로 연결한다(그림 6).
9. 통법에 의해 완성, 연마한다.
10. 치아 발치나 치조골절제술(alvelectomy) 등 외과 시술후 장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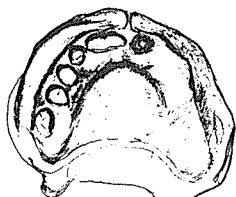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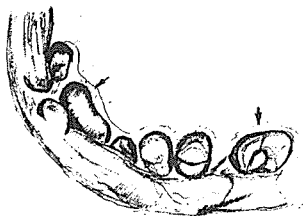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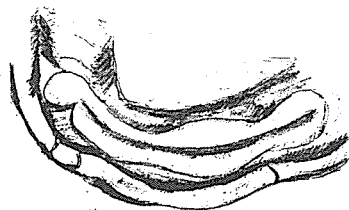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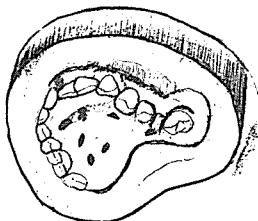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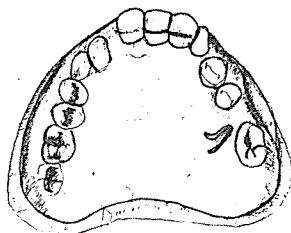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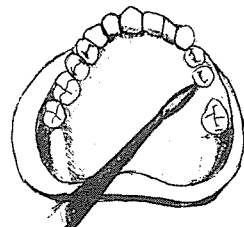


그림 6.

동우 치과 기공소

대표 金貞年

서울·종로구 창신 2 동 647-14

☎ 763-6433 764-7426